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31 주차 (13:1~20)
(2015년 8월 23일 - 2015년 8월 29일)
(제3권 31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31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8 월 23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들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3:12~20)

12.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12절)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의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기대어 앉으신 후에
(Ὅτε οὖν ἔνιψεν τοὺς πόδας αὐτῶν [καὶ] ἔλαβεν τὰ ἱμάτια αὐτοῦ καὶ ἀνέπεσεν πάλιν.)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느냐? (γινώσκετε τί πεποίηκα ὑμῖν·)
- (13절) 너희들은 나를 [다음과 같이] 부른다 (ὕμεῖς φρονεῖτέ με·)
선생님 그리고 주님... 너희들이 제대로 부르고 있다 (ὁ διδάσκαλος, καὶ ὁ κύριος, καὶ καλῶς λέγετε·)
왜냐하면 내가 그이기 때문이다 (εἰμὶ γάρ·)
- (14절) 그런데 만약 나 [곧]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εἰ οὖν ἐγὼ ἔνιψα ὑμῶν τοὺς πόδας ὁ κύριος καὶ ὁ διδάσκαλος·)
너희 서로 서로가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한다 (καὶ ὑμεῖς ὀφείλετε ἀλλήλων νίπτειν τοὺς πόδας·)
- (15절) 왜냐하면 본보기를 너희에게 [보여] 주었다 (ὑπόδειγμα γὰρ ἔδωκα ὑμῖν)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도록 (ἵνα καθὼς ἐγὼ ἐποίησα ὑμῖν καὶ ὑμεῖς ποιῆτε·)
- (16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종이 그의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οὐκ ἔστιν δοῦλος μείζων τοῦ κυρίου αὐτοῦ)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οὐδὲ ἀπόστολος μείζων τοῦ πέμψαντος αὐτόν·)
- (17절) 만약 너희가 이같은 것들을 안다면 (εἰ ταῦτα οἴδατε·)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μακάριοί ἐστε)

- 만약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면 (ἐὰν ποιῆτε αὐτά.)
- (18절) 나는 너희들 중 모두에게 해당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다 (Οὐ περὶ πάντων ὑμῶν λέγω)
 나는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알고 있다 (ἐγὼ οἶδα τίνας ἐξελεξάμην)
 그러나 기록된 것들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ἀλλ' ἵνα ἡ γραφή πληρωθῇ)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에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ὁ τρίγων μου τὸν ἄρτον ἐπήρην ἐπ' ἐμέ τὴν πτέρνον αὐτοῦ.)
- (19절) 지금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ἀπ' ἄρτι λέγω ὑμῖν πρὸ τοῦ γενέσθαι.)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곧 그'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ἵνα πιστεύσητε ὅταν γένηται ὅτι ἐγὼ εἰμι.)
-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누구든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ὁ λαμβάνων ἄν τινα πέμψω ἐμὲ λαμβάνει)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ὁ δὲ ἐμὲ λαμβάνων λαμβάνει τὸν πέμψοντά μ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6~1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종이 그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만약 너희가 이같은 것들을 안다면, 만약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면,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언뜻 읽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적인 가르침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지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앞서 보여주신 행동들이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은 이 세상에서 빛진 자와 채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7).

이같은 원리는 이 세상에서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 지은 자와 빛진 자를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죄지은 자는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종이 되고 빛진 자는 채주에게 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과 주인이라는 종속적 관계가 주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요 자매의 관계로 바뀔 수 있는 길은 용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용서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었던 과오를 없었던 것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 대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 장에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 장 15 절에서 22 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¹⁵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¹⁶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¹⁷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¹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¹⁹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²⁰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²¹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²²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18:15-22).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을 치리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치리할 때 이 말씀에 따라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절차에 관한 말씀입니다. 15 절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죄를 짓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한 상대방이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인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그 해결책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알리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 ‘나’에게 죄를 범한 그 형제는 ‘나’에게 죄인, 다시 말해 ‘나’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따르면 ‘나의 중’인 셈이지요. 그를 중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줄지 말지 여부는 전적으로 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시인하면 그것으로 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사자인 둘만 알고 있을 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참석하게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때에는 교회 차원으로 확대를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국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 18-20)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죄 문제는 반드시 당사자인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뜻입니다. 용서할 자격이 있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주면 그 일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될 때에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죄지은 자의 태도나 행동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과 똑같이 말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마 18:21). 베드로가 이처럼 질문한 이유는 앞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용서’라는 의미로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뜻으로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후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마 18:23-35 참조). 일만 달란트(수백만 달러) 빚을 탕감 받은 종이 그에게 오십 데나리온(노동자의 두달치 월급)을 빚진자를 만나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옥에 가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자들이 맞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용서는 무엇일까요?

17 절을 읽으십시오. 17 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 만약 너희가 이같은 것들을 안다면 (εἰ πάντα οἴδατε.)

B: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μακάριοί ἐστε)

A: 만약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면 (ἐὰν ποιῆτε αὐτά.)

예수님은 만약 우리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자라면 그런 우리는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된 자들이란 마태복음 5 장의 팔복에 언급된 그 복된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은 먼저 자신이 일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 나에게 오십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 주는 사람이지요. 당신은 진실로 복된 자입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해서 끝내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3:12~20)

12.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원문해석하기

- (12절)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의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기대어 앉으신 후에
(Ὅτε οὖν ἔνιψεν τοὺς πόδας αὐτῶν [καὶ] ἔλαβεν τὰ ἱμάτια αὐτοῦ καὶ ἀνέπεσεν πάλιν.)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느냐? (γινώσκετε τί πεποίηκα ὑμῖν·)
- (13절) 너희들은 나를 [다음과 같이] 부른다 (ὕμεῖς φρονεῖτέ με·)
선생님 그리고 주님... 너희들이 제대로 부르고 있다 (ὁ διδάσκαλος, καὶ ὁ κύριος, καὶ καλῶς λέγετε·)
왜냐하면 내가 그이기 때문이다 (εἰμὶ γάρ·)
- (14절) 그런데 만약 나 [곧]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εἰ οὖν ἐγὼ ἔνιψα ὑμῶν τοὺς πόδας ὁ κύριος καὶ ὁ διδάσκαλος·)
너희 서로서로가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한다 (καὶ ὑμεῖς ὀφείλετε ἀλλήλων νίπτειν τοὺς πόδας·)
- (15절) 왜냐하면 본보기를 너희에게 [보여] 주었다 (ὑπόδειγμα γάρ ἔδωκα ὑμῖν)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도록 (ἵνα καθὼς ἐγὼ ἐποίησα ὑμῖν καὶ ὑμεῖς ποιῆτε·)
- (16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종이 그의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οὐκ ἔστιν δοῦλος μείζων τοῦ κυρίου αὐτοῦ)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οὐδὲ ἀπόστολος μείζων τοῦ πέμψαντος αὐτόν·)
- (17절) 만약 너희가 이같은 것들을 안다면 (εἰ ταῦτα οἴδατε·)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μακάριοί ἐστε)

- 만약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면 (ἐὰν ποιῆτε αὐτά.)
- (18절) 나는 너희들 중 모두에게 해당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다 (Οὐ περὶ πάντων ὑμῶν λέγω.)
 나는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알고 있다 (ἐγὼ οἶδα τίνας ἐξελεξάμην.)
 그러나 기록된 것들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ἀλλ' ἵνα ἡ γραφὴ πληρωθῇ.)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에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ὁ τρώγων μου τὸν ἄρτον ἐπῆρεν ἐπ' ἐμέ τὴν πτέρυγαν αὐτοῦ.)
- (19절) 지금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ἀπ' ἄρτι λέγω ὑμῖν πρὸ τοῦ γενέσθαι.)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곧 그'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ἵνα πιστεύσῃτε ὅταν γένηται ὅτι ἐγώ εἰμι.)
-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누구든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ὁ λαμβάνων ἄν τινα πέμψω ἐμὲ λαμβάνει.)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ὁ δὲ ἐμὲ λαμβάνων λαμβάνει τὸν πέμψοντά μ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8 절을 읽으십시오. 지금까지 용서의 의미를 설명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자신의 행동과 가르침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지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에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시편 41 편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은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롯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롯유다와 다른 열한 사도들을 단 한번도 차별 대우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그를 열두 사도 중의 하나로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가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셨으며, 동일한 복음을 전했고, 그를 예수님 공동체 전체의 재정 담당자로 세워 돈까지 맡겼습니다. 심지어는 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만찬장에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의 발을 씻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알고 있다." 여기서 선택된 사람들이란 바로 유다를 제외한 열한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롯유다만 예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왜 그만 제외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가롯유다의 신앙심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롯유다가 한 일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식별해 준 일입니다. 사실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분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의 죄가 더 중죄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왜 가롯유다가 제외되었는지, 왜 하필이면 그였는지, 굳이 자기 제자들 중에서 이런 영원한 실패를 경험하는 한 사람을 택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헌금을 많이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다만 탓할 것

이 아니라 우리들도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말씀을 토대로 스스로 주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끝부분에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²²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²³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23).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서 탈락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지요. 이는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거나 교회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롯유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불리 가롯유다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영망인 삶을 살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모금된 헌금에 손을 대는 등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탈락된 절대적 이유는 아닙니다. 그가 탈락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이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가 유교나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 자신의 의를 내세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자신들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형편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라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리나 창녀, 어부와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란 인간들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나고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며, 훌륭한 일을 해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 의를 겸허히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여기며 불안해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자신감이 없어지는 않나요? 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메우기 위해 더 열심히 종교 활동에 매달리지는 않는지요? 시간을 내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19-20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일이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볼 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단순한 화목 제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아들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목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너희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3:21~30)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앓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줄로 생각하더라
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21절) 이 말씀을 하신 후 (Ταῦτα εἰπὼν)
예수님은 그 영에 괴롭게 되었습니다 ([ὁ] Ἰησοῦς ἐταράχθη τῷ πνεύματι)
그가 증거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ἐμαρτύρησεν καὶ εἶπεν)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을 (ὅτι εἷς ἐξ ὑμῶν παραδώσει με.)
- (22절)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그가 누구를 말하시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ἔβλεπον εἰς ἀλλήλους οἱ μαθηταὶ ἀπορούμενοι περὶ τίνος λέγει.)
- (23절)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을 향하여 기대어 누웠습니다 (ἦν ἀνακείμενος εἰ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ἐν τῷ κόλπῳ τοῦ Ἰησοῦ.)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ὃν ἠγάπα ὁ Ἰησοῦς.)
- (24절)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몸짓을 보냈습니다 (νεύει οὖν τούτῳ Σίμων Πέτρος)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여쭙어 보도록 (πιθέσθαι τίς ἂν εἴη περὶ οὗ λέγει.)
- (25절) 그러자 그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웠습니다 (ἀναπεσὼν οὖν ἐκεῖνος οὕτως ἐπὶ τὸ στήθος τοῦ Ἰησοῦ λέγει αὐτῷ.)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κύριε, τίς ἐστίν.)
- (26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οκρίνεται [ὁ] Ἰησοῦς.)
내가 빵조각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 (ἐκεῖνός ἐστιν ὃ ἐγὼ βάλω τὸ ψωμίον καὶ δώσω αὐτῷ.)
 그래서 그가 빵조각을 찍어서 [받아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βάλωσιν οὖν τὸ ψωμίον [λαμβάνει καὶ] δίδωσιν Ἰούδα Σίμωνος Ἰσκαριώτου.)
 (27절) 그리고 그가 빵조각을 받은 직후, 그 때에 (καὶ μετὰ τὸ ψωμίον τότε)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εἰσῆλθεν εἰς ἐκεῖνον ὁ σατανᾶς.)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οὖν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네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ὁ ποιεῖς ποίησον τάχιστα.)
 (28절) [그러나] 기대어 앉은 자들 중에 누구도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τοῦτο [δὲ] οὐδεὶς ἔγνω τῶν ἀνακειμένων πρὸς τί εἶπεν αὐτῷ.)
 (29절) 왜냐면 어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τινὲς γὰρ ἐδόκουν.)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을 때이므로 (ἐπεὶ τὸ γλωσσόκομον εἶχεν Ἰούδας.)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ὅτι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 (ἀγόρασον ὧν χρεῖαν ἔχομεν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 (ἢ τοῖς πτωχοῖς ἵνα τι δῶ.)
 (30절) 그가 그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λαβὼν οὖν τὸ ψωμίον ἐκεῖνος ἐξῆλθεν εὐθύς.)
 그리고 밤이었습니다 (ἦν δὲ νύξ.)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1~2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에게 곧 닥칠 일로 인해 심령으로 매우 괴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3년여를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던 예수님의 공동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되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에 매우 괴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괴로워한 것’(능동)이 아니라 ‘괴롭게 되었다’(수동)라고 표현하여 그 괴로움의 원인이 예수님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을 배반할 한 사람은 가롯유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모든 책임을 가롯유다 한 사람에게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가롯유다와 상관 없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택한 백성을 위해 희생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롯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에 이토록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다윗왕조를 부활시킬 힘있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기대했던 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를 회복시켜 강한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기는 커녕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가치를 훼손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흉이 되어 드디어 종교지도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가치가 없는 분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의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들도 우리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각자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 당시 공동체보다 훨씬 더 많이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비판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가장 숭고한 가치인 사랑과 용서는 단순히 ‘선언문’이나 ‘주문’으로만 여길 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이니 용서니 말할 뿐 그저 코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립니다. 신앙 고백은 그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락하며 명예롭게 살기 위한 통과 의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실상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가룟유다와 같은 실패자들을 비난하며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가룟유다나 예수님이 부당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면전에서 예수님을 무려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하거나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복음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이해하여 인간들이 자신의 안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들도 역시나 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 절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괴로워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영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필요할 땐 지니고 다니다가 불필요하면 언제든 갖다 버릴 수 있는 장신구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영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굳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저 겉으로만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류의 교인들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쓰기에 늘 자신의 모습을 타인들과 비교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에 실제로 많은 이들의 눈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쳐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나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겐 예수님의 은혜가 실제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한낱 걸치장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살아남의 칭찬을 받는 것’을 은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로 자신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쉽게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늘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무거운 바위 덩어리에 짓눌리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요. 자신의 더러운 행위에 갇혀 빛으로 나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노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매우 의로운 사람이라 여겨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너무 큰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렵습니다. 전자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보다는 공의를 최우선시하여 자기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실 분으로 여겨 아예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꺼려하

는 사람이지요. 안타깝게도 둘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배반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부로 생각하시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3:21~30)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앓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줄로 생각하더라
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21절) 이 말씀을 하신 후 (Ταῦτα εἰπὼν)
예수님은 그 영에 괴롭게 되었습니다 ([ὁ] Ἰησοῦς ἐταράχθη τῷ πνεύματι)
그가 증거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ἐμαρτύρησεν καὶ εἶπεν·)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너희들 중 한사람이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을 (ὅτι εἷς ἐξ ὑμῶν παραδώσει με.)
- (22절)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그가 누구를 말하시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ἔβλεπον εἰς ἀλλήλους οἱ μαθηταὶ ἀπορούμενοι περὶ τίνος λέγει.)
- (23절) 제자들 중 한사람이 예수님의 품을 향하여 기대어 누웠습니다 (ἦν ἀναικείμενος εἷ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ἐν τῷ κόλπῳ τοῦ Ἰησοῦ.)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ὃν ἠγάπα ὁ Ἰησοῦς.)
- (24절)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몸짓을 보냈습니다 (νεύει οὖν τούτῳ Σίμων Πέτρος)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여쭙어 보도록 (πιθέσθαι τίς ἂν εἴη περὶ οὗ λέγει.)
- (25절) 그러자 그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ναπεσὼν οὖν ἐκεῖνος οὕτως ἐπὶ τὸ στήθος τοῦ Ἰησοῦ λέγει αὐτῷ·)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κύριε, τίς ἐστίν·)
- (26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οκρίνεται [ὁ] Ἰησοῦς·)
내가 빵조각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ἐκεῖνός ἐστιν ὃν ἐγὼ βάψω τὸ ψωμίον καὶ δώσω αὐτῷ.)

- 그래서 그가 빵조각을 찍어서 [받아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βάψας οὖν τὸ ψωμίον [λαμβάνει καὶ] δίδωσιν Ἰούδα Σίμωνος Ἰσκαριώτου.)
- (27절) 그리고 그가 빵조각을 받은 직후, 그 때에 (καὶ μετὰ τὸ ψωμίον τότε)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εἰσῆλθεν εἰς ἐκεῖνον ὁ σατανᾶς.)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οὖν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네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ὁ ποιεῖς ποιήσον τάχιστα.)
- (28절) [그러나] 기대어 앉은 자들 중에 누구도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τοῦτο [δὲ] οὐδεὶς ἔγνω τῶν ἀνακειμένων πρὸς τί εἶπεν αὐτῷ.)
- (29절) 왜냐면 어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τινὲς γὰρ ἐδόκουν.)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을 때이므로 (ἐπεὶ τὸ γλωσσόκομον εἶχεν Ἰούδας.)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ὅτι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 (ἀγόρασον ὧν χρεῖαν ἔχομεν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 (ἢ τοῖς πτωχοῖς ἵνα τι δῶ.)
- (30절) 그가 그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λαβὼν οὖν τὸ ψωμίον ἐκεῖνος ἐξῆλθεν εὐθύς.)
그리고 밤이었습니다 (ἦν δὲ νύξ.)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3~2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3년여를 동고동락한 예수 공동체에서 그런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도대체 누가 배반자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향해 기대고 있는 제자에게 몸짓으로 여쭙 보라고 합니다.

23 절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을 향하여 기대어 누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였습니까”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를 요한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을 편애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요한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삶 전체의 궤적을 성찰한 결과로부터 나온 자기고백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에베소로 옮겨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두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이고 다른 한 명은 유다서를 쓴 유다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친동생인 야고보와 유다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그 부탁을 한 것으로 미루어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했고 신뢰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사랑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후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여년이 지난 후 열두 사도 중 요한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직 요한 혼자만이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수를 당하고 친구인 베드로도 십자가

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그런 화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한에게는 그런 상황이 감사하기는커녕 괴로운 천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에 처해지는 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같이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의 고통은 우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할수만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 요한 계시록을 쓰고 난 후에야 그의 바램대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요한의 표현은 너무도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가슴 아픈 사랑이지요.

24 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고 요한에게 대신 물어보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다른 제자들이 아닌 베드로만 그런 궁금증을 가졌을까? 물론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 쓰여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침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질문하기 편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뻔한 이유 때문에 요한이 이 일을 일부러 기록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요한은 베드로와 유다를 묘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표현 기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문장의 의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왜 하필 베드로인가라는 데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한은 베드로나 유다가 도긴 개긴(오십보 백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매우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실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서는 것이지요. 결국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유다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제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 주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들은 가롯유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와 ‘시몬’ 베드로 두 사람을 ‘시몬’이라는 말로 함께 묶어 설명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3 장 2 절은 유다를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로 적고 있는데 사실 아들은 의역이고 정확한 번역은 ‘시몬’의 가롯유다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유다나 베드로 둘 모두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해야 마땅합니다. 두 제자 중에 누가 더 죄질이 중한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드로의 죄가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유다는 자신있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맹세하지는 않았습니. 그는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들이라고 나서서 고백하지도 않았습니. 그랬던 베드로이기에 열한 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나도 그만은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런 실패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인하고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 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지요. 당신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무엇을 용서하시고 무엇을 받아주셨나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나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실수를 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나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5 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의 몸짓 신호를 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을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예외였을 수 있겠지요.

누구라도 유다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진리에 올바로 서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늘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인지 생각하고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신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3:21~30)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앓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줄로 생각하더라
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원문해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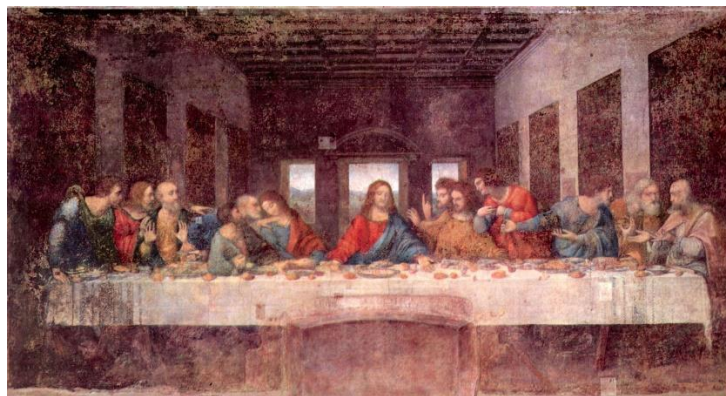
- (21절) 이 말씀을 하신 후 (Ταῦτα εἰπὼν)
예수님은 그 영에 괴롭게 되었습니다 ([ὁ] Ἰησοῦς ἐταράχθη τῷ πνεύματι)
그가 증거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ἐμαρτύρησεν καὶ εἶπεν·)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을 (ὅτι εἷς ἐξ ὑμῶν παραδώσει με.)
- (22절)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그가 누구를 말하시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ἔβλεπον εἰς ἀλλήλους οἱ μαθηταὶ ἀπορούμενοι περὶ τίνος λέγει.)
- (23절)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을 향하여 기대어 누웠습니다 (ἦν ἀναικείμενος εἷ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ἐν τῷ κόλπῳ τοῦ Ἰησοῦ.)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ὃν ἠγάπα ὁ Ἰησοῦς.)
- (24절)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몸짓을 보냈습니다 (νεύει οὖν τούτῳ Σίμων Πέτρος)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여쭙어 보도록 (πιθέσθαι τίς ἂν εἴη περὶ οὗ λέγει.)
- (25절) 그러자 그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ναπεσὼν οὖν ἐκεῖνος οὕτως ἐπὶ τὸ στήθος τοῦ Ἰησοῦ λέγει αὐτῷ·)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κύριε, τίς ἐστίν·)
- (26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οκρίνεται [ὁ] Ἰησοῦς·)
내가 빵조각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ἐκεῖνός ἐστιν ὃν ἐγὼ βάψω τὸ ψωμίον καὶ δώσω αὐτῷ.)

- 그래서 그가 빵조각을 찢어서 [받아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βάψας οὖν τὸ ψωμίον [λαμβάνει καὶ] δίδωσιν Ἰούδα Σίμωνος Ἰσκαριώτου.)
- (27절) 그리고 그가 빵조각을 받은 직후, 그 때에 (καὶ μετὰ τὸ ψωμίον τότε)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εἰσῆλθεν εἰς ἐκεῖνον ὁ σατανᾶς.)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οὖν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네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ὁ ποιεῖς ποιήσον τάχιστα.)
- (28절) [그러나] 기대어 앉은 자들 중에 누구도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τοῦτο [δὲ] οὐδείς ἔγνω τῶν ἀνακειμένων πρὸς τί εἶπεν αὐτῷ.)
- (29절) 왜냐면 어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τινὲς γὰρ ἐδόκουν.)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을 때이므로 (ἐπεὶ τὸ γλωσσόκομον εἶχεν Ἰούδας.)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ὅτι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 (ἀγόρασον ὧν χρειαίαν ἔχομεν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 (ἢ τοῖς πτωχοῖς ἵνα τι δῶ.)
- (30절) 그가 그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λαβὼν οὖν τὸ ψωμίον ἐκεῖνος ἐξῆλθεν εὐθύς.)
그리고 밤이었습니다 (ἦν δὲ νύξ.)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빵조각을 찢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사람이라고 대답하신 후 곧장 빵조각을 찢어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요한에게 귓속말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추정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갔을 때 보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왜 밖으로 나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28 절 참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말씀에서 또 발견되는 또 다른 내용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요한)와 가롯유다가 예수님의 좌우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

을 배반한 제자가 누워있는 것은 마치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당시 좌우에 같이 있었던 두 강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한 강도는 회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되었으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내 부인하며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잔을 받고 예수님의 빵을 받아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극명하게 운명이 엇갈릴 수 있는 것이지요.

2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빵조각을 받은 직후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7 절은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당시 만찬 자리에서 빵조각에 소스를 찍어서 건네주는 행위는 매우 친근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특히 스승이 제자에게 빵조각을 건네는 것은 깊은 사랑의 표시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정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친근감으로 빵조각을 넘겨 주었다고 할지라도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곁을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빵조각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빵조각을 넘겨 주었다 할지라고 유다에게는 그 빵조각이 저주의 빵조각이 되고 만 것이니까요. 어떻게 친근감이 결별을, 사랑이 저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분명 성경은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εἰσῆλθεν εἰς ἐκεῖνον ὁ σατανᾶς, 에이스엘덴 에이스 에케이논 호사타나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다면 앞서 2 절에서 말한 대적자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은 무엇인가?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면 그때 이미 유다는 사단의 세력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실 요한은 그의 글에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계시록에서는 8 번에 걸쳐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외에 요한복음이나 요한 1,2,3 서 전체를 통틀어 이곳 한곳에만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신학자 D.A. Carson 은 사단이 들어 갔다는 말은 사단에 의해 철저히 사로잡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는 사단과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의 손을 완전히 떠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 세력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사단과 한통속이 된 유다에게 사단이 아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모습입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철저히 예수님의 반대편이 되어버린 유다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라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최종 결재, 최종 재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시험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해꼬지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해 오셔서 죽으셔야 했기에 지금 반대편에서 있는 유다를 향해 최종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에게 휘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므로 주무시지도 즐기지도 않으신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시는데 사탄에게 빼앗겨서 죄에 중노릇하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요일 5:18).

여기서 범죄치 아니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 죄를 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빼앗겨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상상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28~30 절을 읽으십시오.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유다가 대화를 나누며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배반은 눈에 띄게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언제나처럼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지요.

가룟유다가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일을 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빛은 고난이 올지라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세상과 연락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3:31~38)

31.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6.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37.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답을 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원문해석하기

- (31절) 그런데 그가 나갔을 때 (Ὅτε οὖν ἐξῆλθεν,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Ἰησοῦς)
지금 인자가 영화롭게 되었다 (νῦν ἐδοξάσθη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 (καὶ ὁ θεὸς ἐδοξάσθη ἐν αὐτῷ.)
- (32절) [만약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면] ([εἰ ὁ θεὸς ἐδοξάσθη ἐν αὐτῷ,])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καὶ ὁ θεὸς δοξάσει αὐτὸν ἐν αὐτῷ),
즉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καὶ εὐθὺς δοξάσει αὐτόν.)
- (33절) 소자들아 (τεκνία,
아직 짧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ἔτι μικρὸν μεθ' ὑμῶν εἰμι.)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ζητήσετε με.)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καὶ καθὼς εἶπο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나는 어디론가 가는데 너희들은 능히 오지 못할 것이다
(ὅτι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εἰσεῖν.)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καὶ ὑμῖν λέγω ἄρτι.)
- (34절) 내가 지금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καὶ ὑμεῖς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 (35절) 이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ἐν τούτῳ γινώσκονται πάντες)

- 너희가나의 제자라는 것을 (ὅτι ἐμοὶ μαθηταὶ ἐστέ.)
 만약너희 서로서로가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ἐὰν ἀγάπην ἔχητε ἐν ἀλλήλοις.)
- (36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κύριε, ποῦ ὑπάγεις.)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Ἰησοῦς·)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ὅπου ὑπάγω οὐ δύνασαι μοι νῦν ἀκολουθῆσαι.)
 그러나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ἀκολουθήσεις δὲ ὕστερον.)
- (37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Πέτρος·)
 주여, 어찌하여 바로 지금은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까?
 (κύριε, διὰ τί οὐ δύναμαί σοι ἀκολουθῆσαι ἄρτι·)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영혼을 내어 놓겠습니다 (τὴν ψυχὴν μου ὑπὲρ σοῦ θήσω.)
- (38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οκρίνεται Ἰησοῦς·)
 나를 대신하여 너의 영혼을 내어 놓겠다고? (τὴν ψυχὴν σου ὑπὲρ ἐμοῦ θήσεις·)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수탉이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세 번부인하게 될 것이다
 (οὐ μὴ ἄλεκτωρ φωνήσῃ ἕως οὗ ἁρνήσῃ με τρί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1~32 절을 읽으십시오. 유다가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화롭게 되었으며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즉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13 장 31 절부터 16 장 33 절은 제자들과 이별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일종의 고별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당부는 장소를 바꾸어 가며 두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13 장 31 절~14 장 31 절이 첫 번째 고별사이고 15 장 1 절~16 장 33 절이 두 번째 고별사입니다. 첫 번째 고별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곁으로 가시고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별사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3 장 31 절은 고별사의 시작 부분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나가자마자 남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화롭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 [만약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같은 사건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배웠듯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고, 예수님은 곧이어 유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의 체포에 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헤롯궁으로, 로마 총독에게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수모를

당하신 후 끝내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고작 몇 시간 후면 일어날 일이니 시간상으로 지금은 매우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운명의 시간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별사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쓰인 문학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고별사의 시작이라면 그 고별사의 시작부분이 어떤 구조로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A: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감 (13:21-30)

B: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선포하심 (13:31-32)

C: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 수 없다 (13:33)

B: 서로 사랑하라 (13:34-35)

A: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심 (13:36-38)

위 구조를 살펴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곳으로 당장 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장 33절 말씀은 14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즉, 14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리 언급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렇게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전체의 가장 자리에는 배반과 부인이라는 제자들의 민낯이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과 부인을 액자의 틀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라는 성경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제자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 배반을 통해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시게 되며, 다른 한 제자의 부인과 배반을 통해 참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인간들의 선과 의, 그리고 인간들의 거룩함에 기초를 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인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우기는 바리새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차마 머리를 들 수 없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리를 밝히 본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앞을 못보는 장님을 찾아 그에게 광명을 주고 진리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배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은 더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너무도 역설적인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그런 배반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러한 배반의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는데?’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배반한 적이 없는 자라면 그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간의 의를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그 의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의 의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철저히 배반하고 부인했던 적이 있나요? 지금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3:31~38)

31.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6.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37.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답을 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원문해석하기

- (31절) 그런데 그가 나갔을 때 (Ὅτε οὖν ἐξῆλθεν,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Ἰησοῦς)
지금 인자가 영화롭게 되었다 (νῦν ἐδοξάσθη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 (καὶ ὁ θεὸς ἐδοξάσθη ἐν αὐτῷ.)
- (32절) [만약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면] ([εἰ ὁ θεὸς ἐδοξάσθη ἐν αὐτῷ,])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καὶ ὁ θεὸς δοξάσει αὐτὸν ἐν αὐτῷ),
즉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καὶ εὐθὺς δοξάσει αὐτόν.)
- (33절) 소자들아 (τεκνία,
아직 짧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ἔτι μικρὸν μεθ' ὑμῶν εἰμι.)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ζητήσετε με.)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καὶ καθὼς εἶπο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나는 어디론가 가는데 너희들은 능히 오지 못할 것이다
(ὅτι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εἰσεῖν.)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καὶ ὑμῖν λέγω ἄρτι.)
- (34절) 내가 지금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καὶ ὑμεῖς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 (35절) 이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ἐν τούτῳ γίνονται πάντες)

- 너희가나의 제자라는 것을 (ὅτι ἐμοὶ μαθηταὶ ἐστέ.)
 만약너희 서로서로가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ἐάν ἀγάπην ἔχητε ἐν ἀλλήλοις.)
 (36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κύριε, ποῦ ὑπάγεις.)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Ἰησοῦς·)
 내가가고자 하는 그곳을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ὅπου ὑπάγω οὐ δύνασάι μοι νῦν
 ἀκολουθῆσαι.)
 그러나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ἀκολουθήσεις δὲ ὕστερον.)
 (37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Πέτρος·)
 주여, 어찌하여 바로 지금은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까?
 (κύριε, διὰ τί οὐ δύναμαί σοι ἀκολουθῆσαι ἄρτι.)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영혼을 내어 놓겠습니다 (τὴν ψυχὴν μου ὑπὲρ σοῦ θήσω.)
 (38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οκρίνεται Ἰησοῦς·)
 나를 대신하여 너의 영혼을 내어 놓겠다고? (τὴν ψυχὴν σου ὑπὲρ ἐμοῦ θήσεις.)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수탉이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οὐ μὴ ἄλεκτωρ φωνήσῃ ἕως οὗ ἁρνήσῃ με τρί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3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짧은 시간 동안만 함께 하실 것이며, 그 후에 어디론가 갈 것인데 제자들이 자신을 찾으려 해도 자신이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이 당장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자들아’ (τεκνία, 테크니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작은 자들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또는 택한 백성들을 부르는 친근한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 중풍에 걸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들것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린 일화에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 환자에게 “소자야네 죄사함 받았느니라”(막2: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때 쓰인 소자라는 단어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중풍병자는 어른인데다가 어찌하면 예수님보다 육신의 나이는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들이 어리거나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전부 택한 백성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테크니아’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가룟유다는 그 만찬장을 떠났고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비장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은 떠날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르는 어떤 곳으로 떠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 중 누구도 그곳에 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은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직 짧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ἐτι μικρόν μεθ’ ὑμῶν εἰμι·에티 미 크론 멘 후몬 에이미).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소량, 소규모, 작은 것을 나타내는 미크론 (영어의 마이크로에 해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날 시간, 다시 말해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을 요한은 무려 일곱 장에 걸쳐(13장~19장)에 걸쳐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유월절 전날 밤부터 유월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ζητήσατέ με, 제테세테 메)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교회 공동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핍박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되고 그때 제자들은 간절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될 것을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사실 공관 복음을 포함한 모든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 그가 이 역사가운데 반드시 다시 개입하실 것이고 그때에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 땅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말의 의미를 자신이 속한 초대 교회 공동체가 극심한 핍박과 환란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보고 절절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당시 그토록 힘들어하는 택한 백성들, 믿는 자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가슴아프게 바라보셨습니다. 아직 구원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과 나를 위한 인내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멀뚱멀뚱거리며 고개만 갸우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고 슬펐겠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말하는데 나는 어디론가 가는 데 너희들은 능히 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능히 오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14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 다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예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마치 자신들이 그 일을 한 것처럼 우쭐대기도 했고, 그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기뻐하는 모습도 보고 귀신이 쫓겨나며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모두 배부르게 하는데는 보리떡 다섯과 물고기 두 마리면 충분하다는 것도 알았지요. 12년을 혈우병을 앓던 여인도, 38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은 열두 살 소녀도 살려 내셨고, 죽은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살아서 무덤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요7:33-34)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

자들은 그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자신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을 또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우리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지요.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끔 우리들을 떠나 우리로 하여금 환란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곳에 버려두지 않고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은 힘든 것이며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성령님이 함께 힘들어 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탄식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모든 묵임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그 엄청난 환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 땅에 내버려둔 이유는 그들이 그 환란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는 게 참 힘들지요? 어떤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칠흙 같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처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